<수능특강>은 교과 개념 이해·적용 '기출문제'는 출제 경향 분석

수능을 준비할 때 EBS 〈수능특강〉과 기출문제를 모은 문제집은 필수 교재입니다.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한 교재는 아닙니다. 〈수능특강〉은 수능 출제 방향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재 교재로 교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문항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교과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, 선지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반면 기출문제는 과거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등에 출제된 문항입니다. 시중 수능 교재 중 〈자이스토리〉나 〈마더텅〉 등이 기출문제를 모아 구성한 문제집입니다. 기출문제는 교과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분석하는 데 좋습니다. 출제자가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, 문제의 조건과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러 해의 기출문제를 풀고 비교하면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개념과 문제 유형, 출제 방식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지요.

따라서 〈수능특강〉과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때는 정답을 맞히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. 같은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문제를 풀면서 관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,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며, 어떤 근거로 답을 찾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

<수능특강>과 기출문제의 차이는 뭔가요?

수능 준비에 EBS 〈수능특강〉 교재와 기출문제는 필수라고 들었어요.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, 또 수능 대비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

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@naeil.com
자료 '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'

More tip

〈수능특강〉은 수능 연계 교재

교육부는 '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'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연계율을 문항 수 기준 50%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,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, 그림, 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